

<스님들께 보내는 글>

스님, 법체(法體) 편안하십니까?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걱정하고, 해수욕장 상인들은 “여름 한 철 장사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쉽니다. 물 폭탄과 산사태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이들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국민들의 정성이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상 이변의 징후가 보였지만 이번 여름의 지루한 장마를 겪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기후 변화를 ‘남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체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대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제자인 우리들이 앞장서서 서로 보살피고 감싸주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동양화가 한경혜의 『오체투지』와 불교학자 목경찬의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한경혜박사는 22년간 매일 천 배의 절 수행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도 도전하기 힘든 히말라야 트레킹에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해준 훌륭한 분입니다. 그의 『오체투지』는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신저라고 확신합니다.

목경찬선생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튼튼하게

쌓아온 교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불교문화의 정수를 구수하게 전해주는 최고의 불교 문화 전문 작가입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는 우리 사찰이 간직하고 있는 넉넉한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 오랜 장마로 무겁게 가라앉은 대중들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책 두 권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불보살님과 자연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밝은 희망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종단도 자성과 쇄신 결사를 탄탄하게 다져서 부처님 제자의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래서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스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종단 안정과 불교 중흥에 힘을 보태주시기 기대하며 청안청락(淸安淸樂)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5(서기 2011) 추석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